

금연이슈

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꺼련형 전자담배, 담배규제의 판도를 흔들다

(1) 꺼련형 전자담배, 위기인가 기회인가

Heated Tobacco Products(HTPs)

(1) An Emerging Challenge to
Tobacco Control



02 인포그래픽
꺼련형 전자담배,
위기인가 기회인가

04 이달의 이슈
꺼련형 전자담배,
담배규제의
판도를 흔들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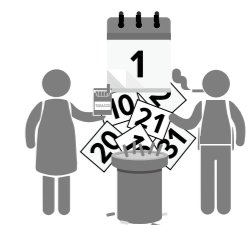
12 이달의 지표
청소년 매일흡연율

AUGUST 2018
Vol. 59

8



우리나라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담배제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 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 담배규제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국내 청소년의 매일흡연율은 2017년 10명 중 6명가량의 중·고등학생이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을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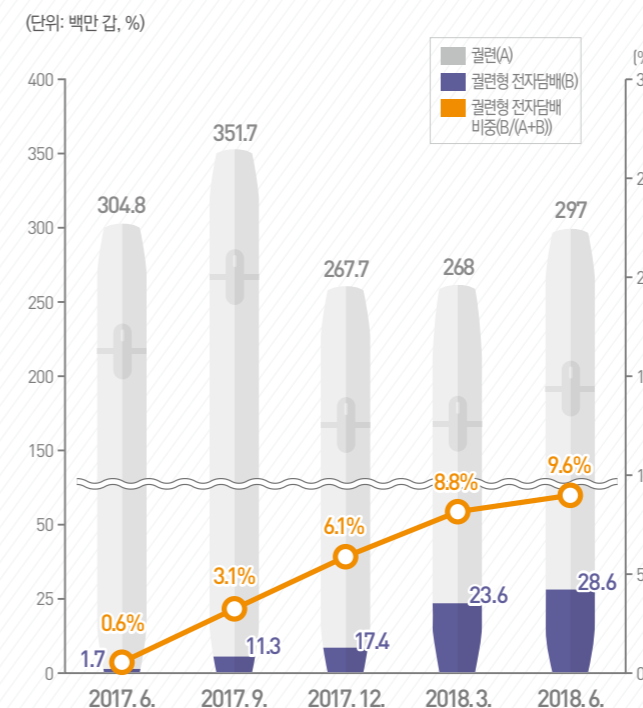
국내외 궐련형 전자담배시장

전 세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또는 판매예정국(2017. 9. 기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 월별 판매량



궐련형 전자담배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열담배(Heated Tobacco Products)라고 부르며, 담배에 불을 직접 붙이지 않고 열을 가하여 중독성이 높은 니코틴과 다른 화학성분이 함유된 증기를 배출하는 방식의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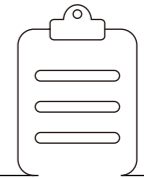
궂련형 전자담배, 담배규제의 판도를 흔들다

(1) 궂련형 전자담배, 위기인가 기회인가

Heated Tobacco Products(HTPs) - (1) An Emerging Challenge to Tobacco Control



우리나라에 궂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고 있다. 출시 전부터 흡연자, 담배회사, 규제기관 모두의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된 궂련형 전자담배. 새로운 담배제품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담배규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담배제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궂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 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 담배규제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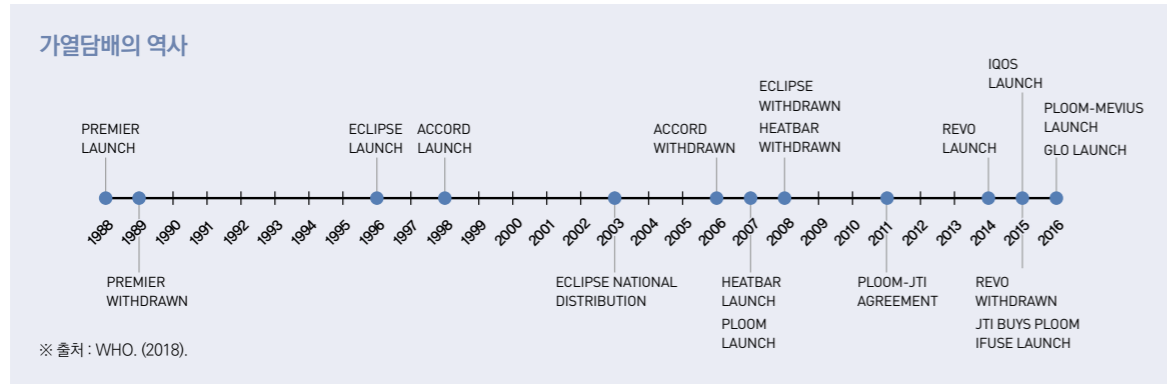


궂련형 전자담배란?

1년 전 우리나라 담배시장에 혁신적인 제품인 것처럼 등장한 궂련형 전자담배란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 의2(담배의 구분)에 따르면 궂련형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제품 중 니코틴 용액이 아닌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분류가 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우리나라에서 궂련형 전자담배로 분류되는 제품을 Heated Tobacco Product(이하 HTP), 직역하면 '가열(식) 담배'로 구분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가열담배(HTP)란 니코틴 및 기타 화학물질을 함유한 에어로졸(Aerosol)을 생성하여 사용자가 입을 통해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제품이다. WHO는 가열담배가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중독성이 매우 강하며, 대부분 담배 외 향이나 맛을 내는 향료 등 다른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 가열담배는 전통적인 흡연, 즉 궂련을 피우는 행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아예 궂련처럼 디자인하여 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출시된 궂련형 전자담배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제품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궂련형 전자담배는 WHO의 정의에 따른 가열담배 제품 중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한편, 담배회사들이 담배에 직접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열을 하는 방식의 궂련형 전자담배를 마치 21세기 혁신의 결정체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과 달리 가열식 담배제품은 이미 30년 전인 1988년에 시판된 적이 있다.

시장성 등의 이유로 제품의 수명이 짧았지만, 가열식 담배제품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양과 이름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출시되어 왔다. 그러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가열담배로 분류되는 담배 중 가장 최신의 형태인 궤련형 전자담배가 우리나라 담배시장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다. WHO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34개국에서 궤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가 판매 또는 판매가 예정되어 있다.



국내 궤련형 전자담배의 급격한 성장

우리나라는 궤련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기 이전까지 궤련의 판매량이 전체 담배제품 판매량의 99% 이상에 기여하는 궤련 중심 시장을 유지해 왔다. 최근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의 추진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16년 40.7%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궤련 외 담배제품,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담배제품에도 궤련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선제적인 정책을 채택,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성인 남성의 비율 또한 2016년 기준 4.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시 1년 만에 담배시장 점유율을 최고 10%까지 기록하고 있는 궤련형 전자담배는 특히 담배사용 감소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규제당국의 입장에서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장세는 우리나라보다 궤련형 전자담배가 1년 먼저 출시된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빠른 수준으로 분석되며, 업계에서는 2020년까지 국내 담배시장 내 궤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3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나라에서 궤련형 전자담배시장이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담배시장 구조하의 업계 간 경쟁 구도가 유독 급격한 궤련형 전자담배시장의 성장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민영화된 국내 기업인 KT&G가 전국 담배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왔으며,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2017년 6월 PMI의 궤련형 전자담배 제품인 아이코스(IQOS)가

우리나라 궤련 및 궤련형 전자담배 월별 판매량

(단위: 백만 갑, %)

연도	궤련 (A)	궤련형 전자담배 (B)	궤련형 전자담배 비율 (B/(A+B))
2017년 1월	280.2	-	-
2017년 2월	237.6	-	-
2017년 3월	281.9	-	-
2017년 4월	305.4	-	-
2017년 5월	299.9	0.2	0.1%
2017년 6월	304.8	1.7	0.6%
2017년 7월	316.2	6.3	2.0%
2017년 8월	297.4	8.2	2.7%
2017년 9월	351.7	11.3	3.1%
2017년 10월	237.7	12.8	5.1%
2017년 11월	264.3	20.8	7.3%
2017년 12월	267.7	17.4	6.1%
2018년 1월	231.7	23.1	9.1%
2018년 2월	239.1	22.1	8.5%
2018년 3월	244.4	23.6	8.8%
2018년 4월	272.3	28.1	9.4%
2018년 5월	272.0	30.4	10.0%
2018년 6월	268.5	28.6	9.6%

※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출시되었고, BAT와 KT&G가 그 뒤를 이어 제품을 즉각 출시하면서 궤련형 전자담배시장은 국내 담배시장에서 유래 없는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아이코스는 경쟁에서 상당한 선점 효과를 보였지만, BAT의 글로(Glo)와 KT&G의 릴(Li)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되면서 업계 간 경쟁이 심화되는 동시에 궤련형 전자담배 제품의 전반적 판매가 급증하게 된 셈이다.

국내 출시된 쉐련형 전자담배 제품 (2018년 7월 기준)



* 왼쪽부터 아이코스(PMI), 글로(BAT), 릴(KT&G)이며 순서는 제품 출시일 기준

※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내부자료

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

문제는 쉐련형 전자담배의 급격한 성장세와 함께 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 또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는 앞서 언급한 담배업계의 논리, 즉 쉐련과 달리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흡연을 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기기장치를 통해 담뱃잎에 열을 가하여 생성되는 증기를 흡입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기 때문에 쉐련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흡연자, 즉 기존의 쉐련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금연의 의지가 적거나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로서 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 담배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 및 사회·경제적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쉐련형 전자담배를 쉐련과 마찬가지로 담배제품으로서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쉐련형 전자담배를 정말 기존의 담배제품보다 덜 해로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주요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쉐련형 전자담배가 쉐련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

담배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연구에서 연구용 표준 쉐련에 비해 쉐련형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연기 중 유해한 성분의 함량이 90%가량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또한 쉐련형 전자담배가 쉐련과 달리 연소(Combustion)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도 생성되지 않거나 생성이 되더라도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배업계로부터 자금 등을 제공받지 않은 독립성이 확보된 연구에 따르면

쉐련형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연기에도 발암물질 및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성분의 함유량은 상이하나 유해성분, 특히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은 쉐련형 전자담배도 쉐련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유해성분의 함량이 90%가량 감소되었다고 하여 실제 사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더욱 없다. 담배의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기간, 흡연량뿐만 아니라 흡입횟수, 흡입깊이 등 사용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쉐련 사용으로 인한 건강 폐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최소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출시된 지 불과 3년여 된 제품 사용의 건강 위험을 유해성분 함량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② 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

한편, 이와 같이 실제 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쉐련형 전자담배를 마치 금연을 위한 또는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흡연자들이 잘못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흡연자들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명백하게 입증된 금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결국 담배제품의 사용을 지속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WHO가 쉐련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가열담배 또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중독성이 높은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상기하여야 한다. 담배제품 사용의 만연은 결국 담배제품 속 니코틴의 중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을 유발 또는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제품도 담배사용을 규제하고 예방해야 하는 보건당국의 입장에서는 쉐련형 전자담배의 잠재적 건강 위험성에 대해 쉐련보다 덜 해롭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③ 쉐련형 전자담배는 간접흡연의 위험이 적다?

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저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쉐련형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유해성분의 함량이 쉐련보다 적은 만큼 간접흡연의 위험도 낮다고 주장한다. 특히 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담배회사의 광고에는 냄새가 적게 난다는 점을 주요 마케팅 메시지로 활용하면서 마치 쉐련형 전자담배가 쉐련보다 간접흡연의 위험이 덜한 제품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해성분의 함량 감소가 실제 인체에 미치는 위험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간접흡연에의 노출 위험에 대해서도 여지가 없다. 오히려, 냄새가 적다는 이유로 쉐련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이나 비흡연자 주변에서 사용할 경우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 가능하다.

④ **결련형 전자담배는 결련보다 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결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위와 같은 쟁점들은 결국 다음의 논란으로 귀결된다. 결련형 전자담배가 결련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인 만큼 결련 사용자들이 결련형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결련보다 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결련보다 낮은 수준의 세금 부과, 결련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내 결련형 전자담배 사용 허용, 결련형 전자담배에 최소 기준의 건강경고 부착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는 바와같이 결련형 전자담배 또한 담배를 주원료 또는 일부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담배제품이라는 점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담배제품이 그 형태나 사용방식 등에 관계없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여 하나의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제품의 대체제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련형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제품 사용의 건강 위해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연구의 결과만을 토대로 덜 엄격한 규제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된 담배규제 정책 전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관련 해외 주요기관 및 연구 발표내용

발표기관	발표 주요내용
WHO (201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코스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종류가 아님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우며 유해성분이 덜 배출되거나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한다는 근거가 불충분
미국 FDA 담배제품 과학자문위원회 (201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코스가 담배 관련 질환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필립모리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일반 담배를 계속 흡연하는 것보다 아이코스 흡연이 덜 위험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음 아이코스에서 분석된 유해성분이 감소되었지만 이것이 질병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님
중국 국립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201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코스 니코틴, 타르는 연구용 표준결련(3R4F)과 유사 아이코스의 다른 성분은 연구용 표준결련(3R4F) 대비 80% 이하 수준
일본 국립보건연구과대학원 (201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결련담배(3R4F)와 비교 시 타르 61.1%, 니코틴 35.3%, 일산화탄소 98.6%, 담배특이니트로사민 90% 감소
스위스 베른대학교 (201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코스는 다양한 발암물질 및 독성물질 함유 * 일반 담배 대비 아세나프텐 295%, 포름알데히드 74%, 이크롤레인 82% 검출
일본 금연학회 및 호흡기학회 (201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코스 사용은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금지해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유통 결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조사 결과 발표

결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결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결련형 전자담배 규제 및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내 판매 중인 결련형 전자담배 3종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그리고 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 성분을 포함하는 총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결련과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특히, 니코틴의 평균 함유량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결련의 함유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타르의 경우에는 결련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는 다시 한번 결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중독 위험이 결련보다 낮지 않으므로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며, 높은 수준의 타르 검출은 결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결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니코틴, 타르) 분석 결과

대상성분	포집법	결련형 전자담배	결련
니코틴 (mg/개비)	ISO	0.1~0.5	0.01~0.7
타르 (mg/개비)	ISO	4.8~9.3	0.1~8.0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법은 담배필터의 천공(穿孔) 부위를 개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결련의 니코틴, 타르 함유량 표시에 적용하는 분석법임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결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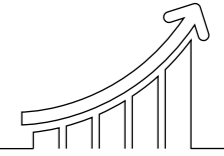
출시 불과 1년 만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담배규제 전반을 흔들고 있는 결련형 전자담배는 분명 지금까지 추진한 담배규제 정책의 노력과 성과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결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담배시장의 10%를 차지하는 결련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고 판매되는 담배제품이라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한편, 지금처럼 담배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적도 드물다. 모양이나 사용 방식에 관계 없이 담배제품은 모두 해롭다는 담배규제 기본 원칙을 공고히 하여 그간 미진했던 정책 강화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결련형 전자담배에 대처하는 규제당국의 전략적이고 영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청소년 매일흡연율, 성별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 시사



청소년 매일흡연율

Prevalence of Daily Tobacco Smoking among Youth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매일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 10명 중 13명가량이 매일 흡연을 하던 것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10명 중 6명가량의 중·고등학생이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 매일흡연율 역시 동일 기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 9.5%의 흡연율을 기록하였다. 문제는 여학생의 매일흡연율이다.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여학생 매일흡연율 역시 2007년 대비 2017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긴 하였으나, 최근 5년 또는 최근 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매일 흡연율이 남학생에 비해 감소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은 2016년에 비해 0.3%p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을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매일흡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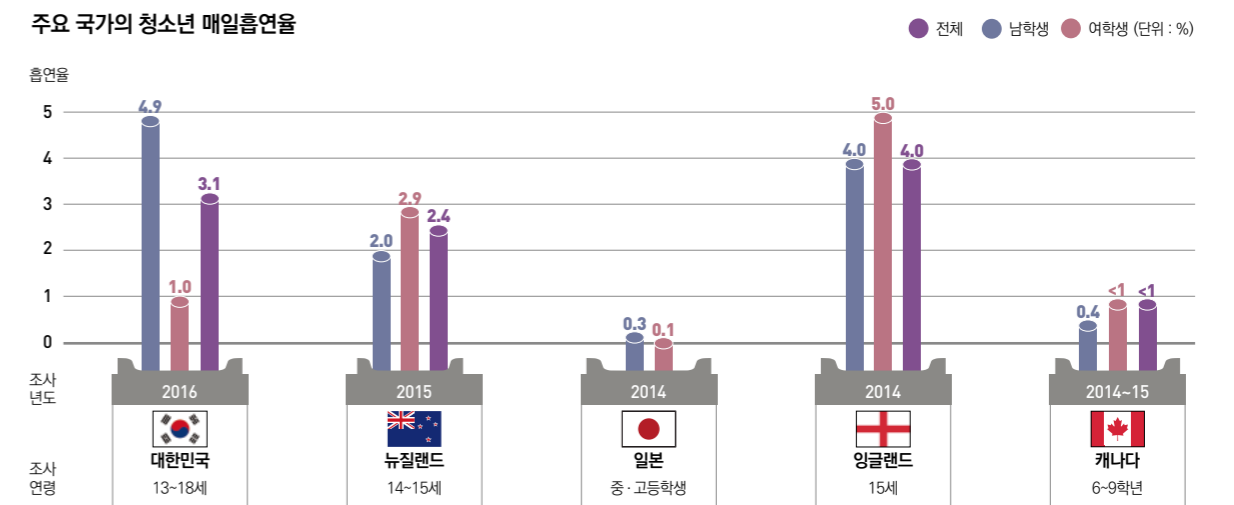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 출처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7).

한편, 청소년 매일흡연율(담배사용률)에 대한 WHO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황을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마다 연령 및 매일사용의 정의 및 사용제품에 대한 기준은 상이하지만 국가별 청소년의 매일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주요 국가의 청소년 매일흡연율



※ 출처 : WHO. (2017).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8). '18년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보도자료(2018. 07. 17.)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담배 타르, 일반 담배보다 곁연형 전자담배 더 많아. 보도자료(2018. 06. 0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Heated Tobacco Products(HTPs) Market Monitoring Information Sheet. WHO/NMH/PND/18.7.

구독신청



매월 금연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요.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9월호 예고



2018년 9월호에서는 우리나라의 곁연형 전자담배시장과 규제 동향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곁연형 전자담배시장이 된 대한민국의 규제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곁연형 전자담배 예방 및 규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금연이슈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발행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www.khealth.or.kr

발행인 조인성

기획총괄 이성규

구성·집필 박경아, 이정은

